



##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10호 2004년 3월 5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연구결과 발표

중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산업연구원·한국개발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을 연구한 『중소기업 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을 발간, 발표하였다.

연구의 배경은 지식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주5일 근무제 등 고용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경쟁과 정책환경 분석, 중소기업 종합 경쟁력 평가, 2008년까지의 비전과 전략,

15개 주요 정책과제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 비전으로 “2만불 시대를 열어 나갈 활력있고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설정하고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 더불어 잘사는 중소기업 공동체 구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원의 연구원(20명) 외에 업계·단체·지원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17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경쟁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5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업계와 학계로 구성된 연구자문단 13명, 15개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중소기업청 실무담당자 157명이 참여(45회의 워크숍 개최), 지방에서 13회의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연 562명 참여)하였다.

중기청은 동 연구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33)

## 중소·벤처 투자심리 회복전망

그동안 침체되었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창투사의 본격적인 투자심리 회복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청이 최근에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2003년도 창투사 운영실적 및 2004년도 투자 전망」에 의하면,

2003년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창투사의 구조조정 및 코스닥침체에 따라 ('02) 6,167억원→('03) 6,118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금년도 신규 투자규모는 ('04) 8,6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2.2% 증가하고, 창투조합 결성규모도 전년보다 93.8%증가한 8,818억원으로 지난 2001년의 수준(7,91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벤처 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중소·벤처투자에 대한 주요특징을 보면, 창투사의 구조조정과 코스닥시장의 침체속에서도 중소벤처 투자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상반기(2,560억원)보다 하반기(3,558억원) 투자가 많아졌으며,

창업투자조합은 개인 및 기관, 외국인 등의 출자비중이 낮아진 반면, 연기금의 출자비중(12.3→30.0%)과 규모(642→1,364억원)가 확대되어 주요 출자자로 부상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의 투자규모가 감소한 반면, 일반제조업,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2004년도 중소·벤처기업 투자전망을 조사한 결과, 금년에는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의 기대감 등 경제여건의 개선전망에 따라 신규 투자규모는 8,6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2.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3,550억원(40.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제조업 2,261억원(26.0%), 엔터테인먼트 1,551억원(17.8%) 순이었으며,

아직 투자규모는 미미하나 환경(증가율 118.4%), 바이오(증가율113.4%)분야에 대한 투자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87)

## 톡톡 튀는 중소기업 제품을 미국유통체인에 직수출

소비자 위주의 미국시장에서 제조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최종 소개하는 Wal-Mart, Sears, Walgreen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품질, 가격경쟁력, 기업건실도 등 까다로운 구매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구매계약 성사시 장기간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중기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유통소매시장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소매유통망 진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미국 해외유통망에 납품가능성이 높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조사, 구매담당자와 현지미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유통망의 구매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을 상담한 결과 품질과 기능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그넷포유』의 “자석용다트”는 자석이 붙는 원단을 사용하여 미국 특허를 보유한 제품으로 구매상담 현장에서 Walgreen과 바로 납품계약이 성사된 아이디어 상품으로 52만불 수출이 완료되었고, 향후 연간 1백만불 이상 수출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셀지노텔레콤,

코아디지털 등의 중소기업이 미국 유통체인과 Test-Order, 계약조건 협의 등이 진행중이다.

중기청은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별접촉하기 거의 불가능한 미국 대형유통체인의 구매담당자와 수출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계약 성사단계까지 제반 절차에 대한 후속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현지 중간수입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유통망과 직거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7)

## 중소기업 정보화에 339억원 지원

중기청은 금년에 339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대·중소기업간 정보화격차는 '02년 대기업의 74% 수준, 지난해 70%의 수준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혁신 및 원가절감에 239억원, 정보화기반구축에 79억원, 정보화역기능방지 및 전략적 경영기법 개발·보급에 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금년 추진내용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인드 제고 및 자체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정보화 저변을 확산해 가면서

지역별·업종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이나 성공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IT업체, 컨설팅업체 등 공급자 선정을 중소기업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을 수요자인 중소기업 위주로 개선하였으며,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생산정보화사업(e-Manufacturing)' 업그레이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04. 3. 4 ~ 3. 31일(4주)까지 중소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되며, 중소기업이 정보화 지원을 보다 많이 이용토록 하기 위해 3. 5일~3. 12일(6일간),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1)



## 중소기업 창업절차대행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절차대행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창업절차대행 범위에 창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대행을 용역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건당 350만원 지원)

사전환경성검토는 공장(1만㎡이상)설립 승인전에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환경청에 제출할 검토서의 작성을 전문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다.(약 2천만원 소요)

창업절차대행에 대한 용역비 지원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공장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는 350만원, 1만㎡이하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원업체도 '03년 90개 기업에서 올해는 2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창업절차대행에 대한 용역비지원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절차대행에 대한 심사, 경영지도 등을 다른 용역사업보다 우선 심사하는 등 지원상에 있어서 우대하기로 하였다.

공장설립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참고: 창업넷, changupnet.go.kr)를 통하여 창업절차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94)